





# 주체혁명위업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력사의 길을 따라 최후승리를 이룩하리

##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90돐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복의 천리길답사길을 열어주신 40돐에 즈음하여

우리는 지금 흰눈덮인 만경대의 나지막한 언덕에 서있다. 잊지 못할 력사의 지점에서 우리는 조국과 민족앞에 승고한 맹세를 다지시며 혁명의 천리길에 나서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모습을 경건히 우러른다. 기승을 부리는 뱀뱀 눈보라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혁명의 발걸음을 합치게 내디디시는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동지!

알짜기 조국해방의 큰뜻을 품으시고 10대의 나이에 혁명의 천리길에 나서신 우리 수령님이다.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아버지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떠나시던 력사의 그날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랴.

세기와 세기를 이어 어느덧 세월은 90년이라는 년륜을 아로새기었다. 그러나 아버지수령님께서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은 고난과 시련을 뚫고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강성변영의 찬란한 미래를 대를 이어 걸어갈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변영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력사입니다.》**

류폐없이 암담하였던 비운의 그날들이 추억의 물결을 타고 파도 치운다. 배운 천리길을 걸으시며 조국에서 두해를 보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덕학교졸업을 몇달 앞둔 어느날 아버지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에 체포 되시었다는 찬탄투부의 소식을 듣게 되시었다.

아버님의 원수, 우리 력사의 원수, 조선민족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사생결단을 해야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다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체없이 광복의 천리길에 나서시었다.

력사의 그 겨울날은 사나운 칼바람에 얼어붙은 대지마저 몸부림치던 때였다. 그때따라 눈이 얼마나 많이

#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갈 혁명의 천리길

오고 바람은 또 어찌나 세차게 불었던지 누구나 선뜻 집문밖에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었다. 가셔야 할 천리길중 절반이상만 무인지경이었다.

길고걸어서도 새 고개가 연방 나타나니 협산준령,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북방의 산악지대, 무쇠다리를 가졌다는 강계포수들도 오르기 지어하는 눈덮인 오가산과 수많은 높은 병을 단신으로 넘고있던 우리 수령님께서 지나신 담대한 배방과 강의 한 의지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세한 눈보라에 거목들이 넘어지는 소리가 그칠새 없었고 때로는 맹수가 길목에서 어슬렁거리려는 위험지대도 있었다.

그러나 모진 추위와 사나운 짐승, 눈덮인 험한 산악도 우리 수령님의 발걸음을 멈추게할수 없었다.

강도 일제와 사생결단을 해야 하겠다는 불굴의 혁명정신, 한시바삐 일제에게 빼앗긴 모든것을 영원한 우리의것, 조선의것으로 만들고싶은 녀념이 그의 발걸음에 실려있었던 것이다.

모진 고생을 겪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경대를 떠나 열사올째 되는 날 저녁무렵 포령나루터에 이르시었다.

세한 밤바람에 두루마기자락을 날리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을 추억할수 있게 하는것이러면 무엇이든 소중히 간직하고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시며 조약돌 하나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혁명의 천리길을 길이 빛내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만경대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적음

집어 손바닥에 감싸쥐시었다. 그러시고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며 천천히 강건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산천을 몇번이나 뒤돌아보시었다. 그때 우리 수령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시었다. 조신아, 나는 너를 떠난

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도록 압록강을 건넌다. 압록강만 건넌다면 나의 땅이다. 그러나 나의 땅에 간들 내 너를 잊을수나. 조신아, 나를 기다려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의 잊을수 없는 심리적제해에 대하여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에 자신께서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셨다고 쓰시었다. 찬바람불어치는 두 나라 지경에서 신음하는 조국산천을 돌아보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다지신 맹세, 그것은 혁명승리에 대한 드물지 않는 신념과 불굴의 혁명정신, 담대한 배방

진두에 서계시었다. 혁명의 천리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수십성상에 이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구원되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이 일떠섰으며 우리 인민의 긍지와 보람찬 생활이 마련되었다.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개척자이시

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과 더불어 빛나는 혁명의 천리길을 배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더욱 즐기게 이어갔다.

끊임없는 선군혁명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인가 한 평을 넘으시며 하신 교시가 오늘도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길에는 대대로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만경대가문의 열렬한 조국애와 무한한 헌신성이 그대로 수놓아져있다고, 나는 이 길을 걸으며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혁명의 천리길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 새겨진 령도의 자욱과 더불어 더욱 빛나고있다.

혁명의 천리길에 어린 아버지수령님의 사생결단의 각오와 의지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강행군의 앞장에서 천만군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에는 새로운 혁명적대교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광복의 천리길은 오늘도 매일도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강성조선의 찬란한 미래와 잇닿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신념의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9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이 시각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대를 이어 수령님, 장군님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와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으로 세차게 끓어번진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주체혁명 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최후의 승리에 이어나가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천출명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바라시던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야만할 것이다. 본사기자 강철남

명문고개. 1월의 찬바람이 옷자락을 날리고 고개를 지키는 보조령들마냥 길길이 자란 나무의 가지들에도 흰눈이 쌓였는데 비운의 갈밭이 우리앞에 다가간다. 《명문고개여, 만년에 길이 빛나라!》

지난날 넘어가기 너무도 힘은 천하 못 넘을 고개라고 하여 고개로 불리우던 이 명문고개가 아버지수령님께서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과 더불어 온 나라 인민은 물론 어린 학생들까지 누구나 아는 명으로, 혁명의 새 세대들의 답사행군대가 끊이지 않는 력사의 지점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주시던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얼마전 우리는 개천철도국의 수송전사들과 함께 혁명의 천리길 개천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령도자이시었을 뿐 아니라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었다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었다.》**

우리가 사적지를 찾았을 때 온 장산은 눈보라천지였다. 강사들과 관리원들이 경건한 자세로 교양마당의 눈을 맑끔히 치는 모습이 보였다. 두루마기자락을 날리시며 혁명의 천리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는 우리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다.

가슴의 쇠고랑에 칭칭 감긴 우리 조국, 애농들의 총칼밑에 신음하는 2천만거레를 구원하기 위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 두들긴 숨을 한번 해올리지 못했던 피스러운 이 나라 인민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철진의 고비들이 막아지고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백두전장을 주름잡으시며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니 그 은공을 무슨 말로 다 노래할수 있랴.

평평 내리는 흰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명문고개는 자강도의 승원군과 전천군사이에서 만경대를 떠나 열사올째 되는 날 저녁무렵 포령나루터에 이르시었다.

세한 밤바람에 두루마기자락을 날리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을 추억할수 있게 하는것이러면 무엇이든 소중히 간직하고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시며 조약돌 하나를

집어 손바닥에 감싸쥐시었다. 그러시고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며 천천히 강건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산천을 몇번이나 뒤돌아보시었다. 그때 우리 수령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시었다. 조신아, 나는 너를 떠난

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도록 압록강을 건넌다. 압록강만 건넌다면 나의 땅이다. 그러나 나의 땅에 간들 내 너를 잊을수나. 조신아, 나를 기다려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의 잊을수 없는 심리적제해에 대하여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에 자신께서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셨다고 쓰시었다. 찬바람불어치는 두 나라 지경에서 신음하는 조국산천을 돌아보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다지신 맹세, 그것은 혁명승리에 대한 드물지 않는 신념과 불굴의 혁명정신, 담대한 배방

진두에 서계시었다. 혁명의 천리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수십성상에 이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구원되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이 일떠섰으며 우리 인민의 긍지와 보람찬 생활이 마련되었다.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개척자이시

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과 더불어 빛나는 혁명의 천리길을 배두의 천출명왕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더욱 즐기게 이어갔다. 끊임없는 선군혁명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인가 한 평을 넘으시며 하신 교시가 오늘도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길에는 대대로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만경대가문의 열렬한 조국애와 무한한 헌신성이 그대로 수놓아져있다고, 나는 이 길을 걸으며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명문고개는 자강도의 승원군과 전천군사이에서 만경대를 떠나 열사올째 되는 날 저녁무렵 포령나루터에 이르시었다.

세한 밤바람에 두루마기자락을 날리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을 추억할수 있게 하는것이러면 무엇이든 소중히 간직하고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시며 조약돌 하나를

집어 손바닥에 감싸쥐시었다. 그러시고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며 천천히 강건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산천을 몇번이나 뒤돌아보시었다. 그때 우리 수령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시었다. 조신아, 나는 너를 떠난

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도록 압록강을 건넌다. 압록강만 건넌다면 나의 땅이다. 그러나 나의 땅에 간들 내 너를 잊을수나. 조신아, 나를 기다려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의 잊을수 없는 심리적제해에 대하여 회고록 《새기와 더불어》에 자신께서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셨다고 쓰시었다. 찬바람불어치는 두 나라 지경에서 신음하는 조국산천을 돌아보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다지신 맹세, 그것은 혁명승리에 대한 드물지 않는 신념과 불굴의 혁명정신, 담대한 배방

진두에 서계시었다. 혁명의 천리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수십성상에 이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혁명활동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구원되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이 일떠섰으며 우리 인민의 긍지와 보람찬 생활이 마련되었다.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개척자이시

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과 더불어 빛나는 혁명의 천리길을 배두의 천출명왕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더욱 즐기게 이어갔다. 끊임없는 선군혁명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제인가 한 평을 넘으시며 하신 교시가 오늘도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길에는 대대로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만경대가문의 열렬한 조국애와 무한한 헌신성이 그대로 수놓아져있다고, 나는 이 길을 걸으며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명문고개, 그것은 이 나라의 무수한 고개들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 걸으신 혁명의 강행군길과 더불어 오늘도 수천수만의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수령님의 고결한 희생과 헌신의 한평생을 되새겨주는 혁명의 고개로 높이높이 솟아 빛나고있다.

명문고개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친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광복의 천리길의 사연많은 고개와 평들을 잊지 말라. 최후승리의 명마루에 오르는 혁명까지 혁명의 강행군길을 끝까지 걸어가자.

본사기자 백영미

제나 끈계 뻗어있었다.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던 그날을 항상 마음속에 안고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협산준령을 헤쳐 넘으시며 위대한 헌신의 강행군 천리길에 걸고 또 걸으시었다.

명문고개, 그것은 이 나라의 무수한 고개들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아버지수령님 걸으신 혁명의 강행군길과 더불어 오늘도 수천수만의 새 세대들의 가슴마다에 수령님의 고결한 희생과 헌신의 한평생을 되새겨주는 혁명의 고개로 높이높이 솟아 빛나고있다.

명문고개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친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광복의 천리길의 사연많은 고개와 평들을 잊지 말라. 최후승리의 명마루에 오르는 혁명까지 혁명의 강행군길을 끝까지 걸어가자.

본사기자 백영미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복의 천리길답사길을 열어주신 40돐을 맞는 우리의 가슴마다에는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시작된 혁명의 길, 광복의 천리길을 이 땅의 새 세대들이 대를 이어 걸도록 해주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그리움의 정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청소년학생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우리 혁명의 계승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에 대한 답사길을 열어주시고 청소년학생들을 백두의 행군길을 역세기에 이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큰 규모의 답사행군대를 뜻고 행군하도록 하시었다. 답사행군대원들을 혁명의 수도 평양에 불러 참관사업을 조직하도록 하고 친아버지성으로 행군 일정을 알아보시며 직속기관 부위 사령관 선출도 인계주시고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의 학생소년들은 답사행군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광복의 천리길에 아로새겨진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눈보라사나운 협산준령도 넘으시며 사상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해갔다.

지금 온 나라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끌어주시는 선군혁명의 후배대로 역세기에 자라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우리는 온 나라 청소년학생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명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뜻고 이어가는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역세기에 준비시켜나 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함광철

# 영원히 높뛰는 애국애족의 숨결

## 혁명의 천리길 개천혁명사적지를 찾아서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선리관에 이어 개천혁명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은 해방의 운인,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개천의 철도로통계급과 온 나라 인민들의 백 목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주재 61(1972)년 4월 15일에 개관되었다. 그때로부터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광복의 천리길을 선군혁명천만리길로 역세계 이어나가자

## 중앙보고회에서 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의 기쁨보고

오늘 우리는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청소년 학생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배두의 혁명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90돐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 답사길을 열어주신 4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습니다.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모두의 가슴 가슴은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라나는 세 세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성스러운 혁명정신과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은 일제식민지통치의 검은구름이 덮인 조국강산에 민족재생의 서광을 비추고 인민대중의 자주사업, 주체혁명위업의 새 기원을 열어 놓은 력사의 길이었습다.

강도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자면 일제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김일성대원수님의 가르침대로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워가 시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어머니께서 일제통치를 또다시 체포 되시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주체 14(1925)년 1월 22일 고향 만경대를 떠나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신 그날로부터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불멸제도를 따라 전진하는 현대조선의 새 력사가 시작되었으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에서 위대한 전환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철칙의 의지를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혁명의 결성조직인 락도혁명주의동맹을 결성하시어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시였으며 새날조던 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조직들을 꾸리시면서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자주적로선을 제시하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과 인민대중의 운동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한 력사적사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필승의 기치를 마련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 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민족주의, 조국수호의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명도하시어 우리 인민을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시고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습니다. 일찌기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며 조국해방의 리명을 밝히고 항쟁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승고한 헌신에 의하여 조선혁명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역세계 전진할수 있었습다.

우리는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혁명의 대개 열번 바뀌어도 주체혁명의 개척자, 혁명전선의 창시자이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자주시대의 승리적전진과 민족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 인민과 청소년학생들의 마음속에 태양의 모습으로 천세만세 영생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혁명의 길, 광복의 천리길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승고한 뜻과 혁명 헌신에 의하여 세기를 이어 선군혁명천만리로 이어졌습니다.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을 굳건히 이어나가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주제64(1975)년 1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걸으신 력사적인 광복의 천리길에 대한 답사행군을 청년동맹의 전통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 청소년학생들이 광복의 천리길에 걷는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주시고 1만명의 학생소년들을 답사행군대에 세워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대원들을 혁명의 수도 영광에 불러 시안의 여러곳을 참관하게 해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한 영상이 모셔진 답사행군대 참가증도 안겨주도록 하시였으며 천 리길로정의 당, 정전기관,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답사행군을 하는 학생소년들을 잘 돌봐주도록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었습니다.

천여마리의 다짐하신 침정으로 답사행군대의 출발정형과 행군일정도 사색하고 지시기를 띄워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였으며 답사행군대원들에게 몸소 축하문도 보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고난의 행군의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도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대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강성국가건설의 돌파구를 전두에서 열어나가시며 자강도를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원》의 높은 뜻을 안고 걸으시였으며 수령님께서 나라찾을 큰뜻을 품고 걸으시였던 길로 오늘도 자신께서 우리 인민에게 락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과 학생소년들에게 만경대가문의 3대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대를 이어 걸고있는 혁명의 길을 어떻게 계속해나가야 하는가를 뜨겁게 일깨워주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헌 명도와 뜨거우 사랑에 의하여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이 시작되어 지난 40년간 수십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청소년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자!》는 충정의 구호를 들고 이 성스러운 로정을 답사하면서 배두산전체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고매한 품모를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애 광복의 천리길은 청소년학생들을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혁명적 길로 더욱 빛나게 되었으며 청소년학생들의 혁명정신과 강고한 의지를 간직할수 있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와 뜨거우 사랑을 안겨주시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적격하게 자라나

고있는 자랑찬 현실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불후의 로고의 고귀한 결실이며 대원수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의 결과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불망한 영광을 드리며 청소년학생들을 배두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주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애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밑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배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장엄한 투쟁의 시대, 주체혁명의 새시대입니다.

우리 당은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력사적전선에서 선군혁명의 계승자로서 김정은원수님께서 걸어오신 선군혁명의 첫후대,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시기를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청년동맹, 소년단조직의 기본임무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 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참석하시어 사랑과 믿음이 담긴 축하인사를 하시였을뿐 아니라 김일성대원수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위업임을 이어가시는 현지도의 사색이나 김형직선생님의 청년동맹 제4차 초급군대대회 참가자들에게 청년들의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될데 대한 서한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며 청년동맹, 소년단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해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습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령

제320호 주제104(2015)년 1월 15일

### 모범적인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3중상, 2중상, 1중상의 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한다.

3중3대혁명붉은기 보전성 1월25일제작사  
2중3대혁명붉은기 회창군의약품관리소  
정주시 일해협동농장 제2작업반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기계화 작업반  
서흥군 삼림경영소 모태양묘 작업반  
장강군 읍협동농장 작업제1 작업반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새기술포소식처  
조선적성자화합병원 비호기 전문병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힘있는 집중강연선전활동으로**

요즘 동대원구역당위원회 직위간접사들로서 부여진 집중강연선전대의 맹활약이 이목을 끌고있다. 여기에는 구역당원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격정속에 접한 김광일, 배정숙 등부족을 비롯한 구역당원들은 직위간접사들과 한자리에 모여있었다. 신년사를 자자구구 학습하고 그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한 그들은 새해의 집중강연선전작전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그리고 새해 첫 전투가 벌어지는 전투장들로 달려나갔다. 이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할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찾고 또 찾았다. 주희일, 김성려, 리인규동무들을 비롯한







#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의 길에 펼쳐나서자

## 우리 생활, 우리 모습을 우리 식의 화법에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선 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중산의 동승을 대 규모 전력생산기지이고 이우하고있는 만수대창작사!

이웃의 전력생산기지에서는 중산의 거센인 승결이 맥박치고 있으나 이곳 창작사의 조선화창작단 창작실들은 물음 뿌린듯 조용했다. 숲소리마저 저어하게 되는 창작실들이지만 소리없는 열풍이 맴돌았다. 모든 창작실들이 드넓은 창작화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사색과 열정을 심장을 끓이며 명작창작의 붓을 달려 부드럽고 섬세한 화풍과 색채가 흘러넘치는 명화폭을 펼쳐가는 창작가들, 밝고 신명하고 부드러운 조선화의 특성과 우수성이 엮여있는 화풍들을 보느라 명작창작에 심혈을 기울여가는 그들의 창작적열기에 심취되는 것 저도모르게 가슴 후덕아울랐다.

감동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 게 창작단원인 장용남동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창작단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을 찾아서

의 모든 창작가들이 천만군민을 비약창조로 불러일으키는 명작창작에 떨쳐나섰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백두산전설위인들의 은정 이 깃들여있고 주제미술을 대표하는 우리 민족고유의 조선화를 창작하는 궁지가 참으로 크답니다.》

생각 깊어지게 하는 말이였다. 주제미술을 대표하는 조선화, 조용히 되뇌이거니와 애도 이곳 창작가들의 가슴가슴은 궁지와 자랑으로 한껏 부풀어오르고 있다.

조선화가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를 풍부하게 담고있으면서도 선명하고 간결하며 섬세한 화법으로 현실을 생동하게 그려내는 조선민족특유의 힘이고 아름답고 고상한 회화성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만이 아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다. 하지만 오늘 자기 고유의 이름을 가진 조선화와 같은 민족미술을 자랑하며 발전시키는 민족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민족성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며 활짝 꽃피워주시 우리 장군님께서는 유화보다 훨씬 앞서 창조된 조선화를 세상에 들도 없는 민족적재부로, 주제

미술을 대표하는 본보기로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은정속에 찬란한 개화기를 맞은 조선화를 창작한다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지난 기간 조선화창작단의 창작가들은 수많은 국보적인 조선화작품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단하다고, 대작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 해주신 대형그림 《울림록포의 가을》과 대형명공조선화 《백두산전지》의 216봉우리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가슴깊이 간직한 우리 것이 제일이라는 자부와 긍지, 조선화를 만방에 떨치려는 이들의 창작적열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보살피심속에서 더욱 높아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상화를 조선화로 더욱 훌륭히 형상화해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창작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으며 조선화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는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창작가들의 창작적흥분과 열정을 비사히 분출시켰다.

고결한 총성과 함께 독창적인 미학사상, 비사한 예술적전통과 탐구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이곳 창작가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재조각상을 인류문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로

운 조형예술형식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형상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지난해에도 이곳 창작가들은 《꽃은비 맞으시며》, 《보통강변의 겨울》, 《오늘도 백두밀림은 설레인다》 그리고 물고기대물을 마련하여 황금해력사를 창조해가는 선구자들의 위훈과 광만을 생동하게 형상한 《(단종) 호의 메아리》와 청년강을 전기강, 보배강으로 전변시켜보는 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을 보여주는 《청천강의 기적》, 세로지에서 천지개벽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개척자들의 투쟁성과를 실감있게 그린 《세로동판에 봄이 온다》를 비롯한 사상에술성이 높은 조선화작품들을 수없이 창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운 조선화창작단의 창작가들, 우리의것을 제일로 사랑하고 끝없이 빛내여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우리 민족의 자랑 조선화를 세상에 더욱 빛내일 비사한 각오를 안고 펼쳐나신 그들의 왕성한 창작적열기로 하여 창작실현은 소리없는 열풍속에서 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른것이다.

### 우리 식의 생활이 제일

우리 식은 곧 주제사상이며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

노래도 우리의 노래가 제일이고 인사법도 우리의 인사법이 제일이며 생활방식도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생활풍습이 반영된 우리의 생활방식이 제일이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하나같이 노래한다.

이국의 물가에 피어난 꽃도

《주제, 그 이름과 더불어 빛나는 자랑》

대동강반의 주제사상탑

오늘도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새차게 떠오르는 주제사상탑의 불화!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건축물인 주제사상탑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으로 울린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인간중심, 인간해방의 사상인 주제사상!

이름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전투적기치로 높이 들고 고풍없이 전진하여왔기에 선군조선의 빛나는 어제와 오늘이 있고 희망찬 내일이 있는것이다.

오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 철도 섬유도 비료도 우리의것

애국은 주제이고 주제는 애국이다. 그래서 우리에는 애국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에 주제가 말을 붙여 부른다.

철도 주제철, 비료도 주제비료, 섬유도 주제섬유이며, 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며 창공높이 솟아오른 기념비적건축물들과 무연하

## 높은 자존심, 뛰어난 슬기의 결정체

평양기계대학 교원, 연구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라에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이 차넘치기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평양기계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완전한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로 양말생산의 중요공정을 현대화하였다.

당당히 우리의것이라고 할수 있는, 공업부문에서 제노라하는 나라에도 없는 자동양말꽃기는기계를 만들어냈던것이다.

역사공정에서 나온 양말을 열처리공정에 넘기기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제품을 양말본에 띄워야 한다.

이 공정만은 손로동으로 하고 있는것이 세계 양말생산부분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평양기계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도전한것은 두해전이었다.

평양양말공장을 찾으면서 한 연구사의 연구성과를 높이 치하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대로 영감을 주르르며 자신들도 그 연구사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리는 우리의 첫,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내고 싶었다.

하여 그들이 내세운 목표가 바로 세계적으로 만들어본적이 없는 자동양말꽃기는기계였다.

목표는 높았으나 쉬운 일이 아니였다. 열핏 생각해도 설비의 제작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기때문이었다. 우리 힘과 기술로 꽤 해내겠는가 고민신난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의 기계설계연구소 소장 최동일, 연구사 라승일, 김병성, 기계생산공학부 강좌장 윤철호동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사들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것이 곧 우리의 목표이며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높은 민족적자존심, 과학기술적 잠재력이 있는 한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이런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그들은 미지의 과학탐구세계로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가장 합리적이고 리상적인 설계를 위해 온 연구진단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였고 설계에 따른 설비제작을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완성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다.

설비의 심장부라도 같은 어느 한 부분공공이 제기되었을 때였다. 그것은 최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인데다가 우리 나라 기계제작부문에서 한동안 까야본적이 없는것이였다.

일부 사람들이 그 부분공공만은 다른 나라에서 해결해오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심장부를 남의것으로 해결한다면 그것을 당당히 우리것이라고 말할수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의 기술로 만들자는것이 그들의 드림없는 자세였고 의지였다.

공장에 파견된 연구진단만이 아닌 온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펼쳐나섰다.

집단의 지혜와 힘은 컸다. 기발한 착상과 합리적인 가공방법들이 쏟아져나오고 드디어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되던 부분공이 훌륭히 완성되는 기적적인 성과가 기록되었다.

지난해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드디어 조선지식인들의 높은 자존심, 뛰어난 슬기의 결정체인 자동양말꽃기는기계의 시운전이 진행되었다.

성공이였다.

## 조선의 국보를 더욱 빛내여가리

이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은 사회에 민족적정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차넘치기 하여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격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

이 있다고 밝혀주시였다. 참으로 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주옥같은 명으로 깊이 새겨진 헌다.

돌이켜보면 21세기를 전후로 자기 민족의 우수성과 전통을 고수하고 자긍심을 더욱 빛내여나가는 문제가 나라와 민족들의 생사존망, 장래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적은 일찍이 없었다.

남의것을 그대로 받아들인것이 민족적인 우수성을 전승하고 품습이 사라져가고있는것은 물론 문화생활과 경제생활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 나라들의 비참한 현실은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가.

진정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것이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의 현실을 통하여 찾게 되는 심각한 교훈이다.

자신의것이란 곧 자기 인민의 것, 민족의 것 이다.

스민 최첨단수준으로!

우주를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른 인류구위성이며 주제철과 주제비로, 주제섬유의 장대한 흐름, 온 나라에 흠뻑이치는 우리 식의 거창한 CNC대량이회 회전전선의 눈부신 기적, 세월을 주름잡으며 자기의 모습을 거변히 드러낸 마시멜스기중과 기계공업총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며 이 땅에 더욱 새차게 물아지는 문명바람은 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의것을 더욱 빛내여가기 위한 벅찬 투쟁속에서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 아니겠는가.

진정 세상을 둘러보아도 흥겨운 우리의 민요가락이 제일이고 자기의 장단에 맞추어 추는 우리의 춤이 제일이며 우리의 민족음악, 우리의 민족놀이, 우리의 멋에 사는 아름다운 우리의 생활이 제일이다.

우리 박물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내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민족문화유산들을 나라의 만민재부로, 국보로 더 잘 관리하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사람들 가슴마다에 우리의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도록 하겠다.

조선중앙악사비서관관장 어해룡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청춘을 빛내여갈 일념으로 노래를 부르는 금성정치대학의 청년대학생들

##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계급교양이다

반미교양을 힘있게

### 제것이 사멸되여가는 땅, 미래가 없는 암흑사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온 나라에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이 차넘치기 해야 한다고,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우리의 민족전통이다. 우리 손으로 이 땅 위에 건설한 모든 재부들이다.

오늘 미래를 비롯한 계급주의자들은 우리 내부에 썩어빠진 부르조아사문화를 침투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우리의 건전한 민족적 전통을 파괴하려는 사문문화는 류트시켜 우리의 사상전진을 허물고 나아가서 사회주의전위들을 빼앗으려고 미처나머는 계급주의자들의 용화된 침략행동의 한 고리가 바로 민족말살책동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어를 이질화시키려는 적들의 책동은 결코 통할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계급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행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이 땅위에 우리의것, 조선의것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조하고 빛내여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 건설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오은별

### 반미교양을 힘있게

전선군을 남새전문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반미계급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미제의 야수적 만행을 보여주는 사진, 그림책 등 자료를 수집하여 계급교양실을 잘 꾸려놓고 참관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물교양자료를 계속 발굴수집하여 계급교양실에 진렬하고 있으며 체형자, 목격자들과 그의 후손들이 직접 출연하는 해설모임도 자주 조직하고 해설강사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계급교양사업이 높은 감동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 근로단체일군들과 선동원들이 최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압살책동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렬하게 벌여지고있는가를 보여주는 당

본사기자

### 반미교양을 힘있게

본의 자료들을 적극 리용하여 아첨독보시간에 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활발히 벌리도록 하겠다.

지금 이국 농장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미제와의 판가리결사전에서 기어이 승리자가 될 철심의 의지를 안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참호를 굳건히 지키고있는 높은 열의에에 당면한 영웅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가고있다.

장정철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구장군계급교양반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